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

문화부, 문화예산 조기 집행으로 경제 활력 제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도 정책목표로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하기 위해 문화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에 총 2조840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구랍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대통령 보고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 ‘콘텐츠로 경제 활력 제고’, ‘미래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 등 3대 목표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이는 미국 대공황 당시 문화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가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경제 회생에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2009년에는 문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현재 국내외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활력을 불

어 넣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등 10대과제 보고

이날 발표한 주요사업들을 비롯하여 2009년도 문화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일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국민문화향수권 확대 등에 2009년도 예산 및 기금 총 2조8405억원을 투입한다.

문화부는 경기 활성화와 정책효과 조기 실현을 위해, 주요사업비(기본경비 제외) 2조5988억원 중 상반기에 1조6154억원을

집행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인 62.2%를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1월 중에만 3천억 원을 즉시 집행할 계획이다.

문화 일자리 1만 8천개 창출에 1754억원 투입

문화부는 세계적인 경제난의 여파로 어려워진 국민들의 삶에 희망의 불을 지피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소외지역과 계층을 중심으로 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당장 3월부터 총 1350억원을 투입,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문화·스포츠 바우처, 복지관광, 사랑티켓 등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을 통해 약 96만여 명의 국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술 뉴딜 프로젝트', 청년인턴 채용 확대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9년에 1754억원을 투입하여 총 1만 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먼저 문화예술강사 운영과 체육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775억원을 투입하여 9508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며, 2009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예술 뉴딜 프로젝트'에는 총 70억원을 지원해 총 1350명의 예술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문화재의 관리·보존을 통해 1,481개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청년인턴 채용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5048개 일자리를, 문화관광 녹색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613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화의 물결로 4대강을 되살리다

문화부는 문화와 역사, 사람과 이야기가 있는 '문화의 물결'로 4대강을 재탄생시켜 21세기 녹색문화 르네상스를 열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강변 문화관광권을 구축하여 권역별로 특화시키고, 친환경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문화가 있는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문화관광 분야 TF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09.1~5월)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의 마스터플랜 수립과도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복원 및 집대성하고 '4대강 유역 향토 문화지도'를 제작하며,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자전거 여행길 등을 비롯한 테마형 관광상품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레저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연계 관광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함께 경쟁력 있는 국제적인 친환경 문화·관광·레저 휴양지역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국 대학들과 지역문화자원의 브랜드상품화 도모

문화부는 4대강 유역을 비롯한 지방경제의 문화적 활성화를 위해 전국 주요대학 강의와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연구와 홍보마케팅을 공동추진하고 지역대학에서 기획한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들과 함께 지역문화 자원의 브랜드상품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관학협동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세계 우수대학들과도 한국문화 브랜드를 공동 연구하여 세계적인 유명사이트에 홍보하거나 장관이 직접 한국문화 세일즈 외교를 펼치는 한편,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하여 한국문화의 브랜드에 대해 토론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제고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문화부는 세계 각국과의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열린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특히 유럽·미주, 중동·아프리카, 동남아 등 권역별로 차별화된 문화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교육, 봉사단 파견, 쌍방향 및 3자간 문화교류, '스포츠 나눔 프로젝트' 등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각종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문화동반자 사업 등 민관협력을 통한 국제문화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의 문화리더십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드라마, 영화, 비보이, 태권도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화상품을 한류 브랜드화하고, CF 촬영현장 투어, 한류스타 대형 이벤트, 아시아송 페스티벌 등을 통해 한류 붐을 다시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을 추진한다.

문화부는 이상의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함으로써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국민의 마음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희망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10대 추진과제

- ❖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
 1. 국민과 함께 하는 희망 프로젝트
 2. 생활속의 문화체육활성화
 3. 국민공감 국정홍보
 - ❖ 콘텐츠로 경제 활력 제고
 4. 문화체육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5. 투자 및 유통 활성화
 6. 해외 마케팅 강화
 - ❖ 미래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
 7.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8. 녹색성장 및 문화복지 지원
 9. 문화정책성 및 브랜드 확립
 10. 문화행정 지원체계 개편